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양향근 해설
http://g.daejangbu.com/

문 1.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 ㉠ 우리는 널따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 ㉡ 밀가루 반죽을 홍두깨로 넓적하게 편다.
- ㉢ 손흥민 선수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실증을 느낀다.
- ㉣ 그 집 지붕에는 얇다란 함석판들이 이어져 있었다.
- ㉤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굵다란 눈물을 뚝뚝 흘렸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해설] 정답 ③

- ㉠ 기본형이 '널따랠다' 따라서 활용형인 '널따란'은 올바르다.
 - ㉡ 기본형이 '넓적하다' 따라서 활용형인 '넓적하게'는 올바르다.
 - ㉢ 기본형이 '굵다랠다' 따라서 활용형인 '굵다란'은 올바르다.
- < 오답 해설 >
- ㉣ 문맥상 '실증'이 맞다.
 - ㉤ 기본형이 '얇따랠다' 따라서 활용형은 '얇따란'이 알맞다.

문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불휘 기픈 남근 브래 아니 똥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꺄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래 가느니 < 용가 2장 >

를 깊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똥씨 물 툰자히 건너시니이다
 城 높고 드리 업건마른 하늘히 도복씨 물 툰자히 느리시니이다 < 용가 34장 >

님그미 뺨커 신마른 太子 를 물 어드씨 누른 남기 니러 시니이다
 나라히 오라 건마른 天命 이 다아갈씨 이른 남기 새 똥 나니이다 < 용가 84장 >

- ① 초성중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 ②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 ③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 ④ 종성독용팔자(終聲獨用八字)

[해설] 정답 ②

지문에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종성부용초성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에 끝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쓰는 8종성법이 있었다. 그러나 용비어천가는 8종성법을 지키지 않고 'ㅈ, ㅊ, ㅍ, ㅌ' 등의 종성도 썼다.
 종성부용초성은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쓴다는 뜻이다. 초성은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ㅎ, ㅎ, ㅇ, ㄹ, ㅅ'의 17개.

문 3. 다음 중 줄여서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 ① 바뀌었다.
- ② 품종이어요.
- ③ 줄어들었습니다.
- ④ 다투었군요.

[해설] 정답 ④

표준어 규정 26항을 통해 '이다'의 어간 뒤에 '-에요', '-어요'가 붙은 '-이에요'와 '-이어요'의 쓰임을 보면
 1.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와 이것이 줄어든 '-에요', '-여요'가 모두 가능.
 예) 무지개이에요, 무지개이어요, 무지개에요, 무지개여요
 2.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의 형태.
 예) 품종이어요, 책이어요
 한글 맞춤법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서 'ㅛ/ㅠ'로 줄어지는 것은 'ㅛ/ㅠ'로 적는다.
 따라서, '다투었다' -> '다투다'
 '바뀌었다'는 어간 '바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로 줄여서 쓸 수 없다.

문 4.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김치 Kimchi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불국사 Bulkuksa 속리산 Songnisan 대관령 daegwalryeong

- ① 김치 Kimchi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설날 seollal
- ②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 ③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 ④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rlyeong

[해설] 정답 ③

로마자 표기 규정에 따라 식생활 용어, 의생활 용어, 주생활 용어, 명절과 풍습, 놀이와 무예와 관련된 단어들은 모두 첫 글자를 소문자로 적는다. 따라서 설날 역시 첫 글자를 소문자로 적는다. 설날[설:랄] seollal 김치[김치] gimchi, kimchi 대관령[대관령] Daegwallyeong 속리산[송니산] Songnisan 불국사[불국사] Bulguksa 벚꽃[벚꽃] beotkkot

문 5.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성어는 무엇인가?

과연 노파는 한 푼이라도 더 돈으로 바꾸고 싶은 노파심에서였을 것이다. 먹지도 않고 그 곁에서 () 하는 나에게 하나쯤 먹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먹음직하거든 제발 좀 사달라고 얼굴은 울음 반 웃음 반이다.

- ① 小貪大失
- ② 寤寐不忘
- ③ 十匙一飯
- ④ 垂涎萬丈

[해설] 정답 ④

지문의 작품은 이상의 수필인 '모색'이다. '모색'이라는 뜻은 '해 질 무렵의 경치'란 뜻이다. 이 작품은 시골장터에서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그들 곁에서 머루와 다래, 복숭아 등을 팔고 있는 노파의 모습을 도시인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성어는 수연만장이다.

수연만장: 침을 만 길이나 흘린다는 뜻, 몹시 탐냄.

문 6.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 ① 훈몽자회
- ② 한불자전(韓佛字典)
- ③ 말모이
- ④ 큰사전

[해설] 정답 ① (유력)

- ① 조선 중종 22년(1527)에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로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만든 한자교과서다.
- ② 한불자전은 1880년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에서 한국어를 불어로 풀이한 사전이다. 우리말의 단어를 한글로 제시하고 그 발음을 로마자의 대문자로 적고 있다. 한불자전은 한국어를 모르는 프랑스인들을 위해 한국어를 알려주는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이다.

* 이 문제는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문 7.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쓰인 것은 무엇인가?

<보기>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을 그 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 ① 누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② 선생님은 제가 여쭙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 ③ 아버지께서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 ④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해설] 정답 ②

보기에는 주체높임(께서, 쓰시던)과 객체높임(께, 드리다), 상대높임(-습니다)이 사용됐다.

모두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②번이다.

주체높임(선생님, 계셨습니다) 객체높임(여쭙었던) 상대높임(-습니다)

문 8. 다음 중 문장의 배열이 알맞게 된 것은 무엇인가?

(가)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부는 이야기다.

(나)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값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라)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료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돌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津津(津津)한 묘미가 있다.

- ① 라 - 나 - 가 - 다
- ② 라 - 나 - 다 - 가
- ③ 나 - 라 - 가 - 나
- ④ 나 - 가 - 라 - 다

[해설] 정답 ②

해당 지문은 김소운의 수필 '특급품'의 일부분이다.

대장부 학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2번이나 다룬 대표적인 수필 작품이다. 수필의 문맥상 흐름으로는 라 - 나 - 다 - 가.

< 작품 해설 >

제목: 특급품 (출간: 1952)

작가: 김소운(金素雲)

형식: 수필

성격: 유추적. 교훈적

주제: 과실을 극복해낸 인생의 가치와 유연성이 있는 삶

문 9.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 ① 과실을 극복하여 유연한 태도를 배우는 필요성.
- ② 각박한 현실에 맞서서 대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③ 대상은 신비로운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③

㉠ 근삿값(近似값)[근사값] 한자어 + 고유어, 된소리

- ① 시냇물[시:넌물] 고유어 + 고유어, 'ㄴ'이 덧남
- ② 조갯살[조개살] 고유어 + 고유어, 된소리
- ③ 전셋집[傳賃집][전세집] 한자어 + 고유어, 된소리
- ④ 두렛일[두렌일] 고유어 + 고유어, 'ㄴ'이 덧남

문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LP는 CD보다 고음역을 제대로 표현한다.
- ② CD는 44.1kHz, 16비트 해상도라는 단점이 있다.
- ③ LP와는 다르게 CD에서 저음을 들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느낌을 준다.
- ④ 양자화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지문에서 CD는 양자화,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수점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고 나온다.

문 16.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가)와 (나)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② (나)와 (다)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다)와 (라)는 CD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가), (다), (라)에는 은유와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설] 정답 ④

(가)는 현상의 결과이며 (나)는 그 원인이다.
(가) (다) (라)의 전개방식에는 은유와 직유가 사용됐다.

문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그쪽으로 갈까요? 어젯밤에 갔던데요.
- ② 모르겠던데요.
- ③ 왔던데요.
- ④ 아프던데요.

[해설] 정답 ①

'데'가 의존 명사로 쓰이면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①번은 '곳','장소'의 의미. 의존 명사라 띄어 써야 한다.
'데'가 붙어 쓰기할 때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일 때다.

문 18. 다음 중 현대어로 번역이 잘못된 것은?

- (가) 毗盧峯(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뒤신고
- (나)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느야 높듯던고
- (다) 넓거나 넓은 天下(천하) 엇씨혀야 적당 말고
- (라) 오르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힐가

- ① 비로봉에 올라보니 그대는 누구이신가?
- ②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 ③ 넓거나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했는가?
- ④ 오르지 못했으니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해설] 정답 ①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문 19. 회의 의안 심의 과정 올바른 것?

- ①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찬반토론 - 표결
- ②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표결
- ③ 제출 - 찬반토론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표결
- ④ 제출 - 제안설명 - 상정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표결

[해설] 정답 ①

해당 문제는 선지의 첫 번째 순서가 모두 '제출'였다. 그 다음부터 순서에 맞게 과정을 고르면 되는 문제다.

올바른 회의 순서는

개회 -> 보고사항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찬반토론 -> 표결 -> 폐회

문 20.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마치겠다.
- ② 자꾸 밤새지 마라, 몸 축날라.
- ③ 밤센 보람이 있다.
- ④ 몇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해설] 정답 ④

- 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마치겠다. -> 새워서라도
- ② 자꾸 밤새지 마라, 몸 축날라. -> 밤새우지 마라
- ③ 밤센 -> 밤새운 보람이 있다. 기본형은 '밤새우다'
- ④ 맞는 표현

문 21. 다음 중 두음법칙 구성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공+염불
- ② 신+년도
- ③ 강수+량
- ④ 비구+니

[해설] 정답 ②

'신년도' 는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이다. '신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한 단어.

문 22. 다음 중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빛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윷목

- ① 열무 삼십 단을 이고 ② 해는 시든 지 오래
- ③ 찬밥 ④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해설] 정답 ③

③ 찬밥은 엄마가 아닌 어린 시절 가난했던 화자의 서글픈 모습을 비유한 시어다.

문 23. 다음 중 '배춧잎 같은 발소리'와 동일한 수사 기법은?

- ① 고요한 빛소리
- ② 내 유년의 윷목
- ③ 해는 시든 지 오래
- ④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해설] 정답 ④

배춧잎 같은 발소리 - 직유법

- ① 고요한 빛소리 - 청각적 심상
- ② 내 유년의 윷목 - 은유법
- ③ 해는 시든 지 오래 - 활유법
- ④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직유법

24. 다음 중 문장부호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③ 가운데점은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쓴다.
- ④ 문장 안에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 겹낫표를 쓴다.

[해설] 정답 ③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하는 것은 빗금(/)이다. 예) 100원/개
가운데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다. 그 묶음 사이에는 쉼표가 들어가야 한다.
예)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었다.

25. 외래어 규정이 잘못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정답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만을 쓴다. 이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외래어 표기법 제3항을 보면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2020 대비 군무원 개강 !

국내 유일 군무원 면접관 출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군무원 면접 1차 전화 접수: 2019년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2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http://g.daejangbu.com/> 02-849-7746

< 2019. 6. 22. 군무원 9급 국어 적중 내용 확인 >

1번 2번 11번 17번 문제는 국어 이론서에서 모두 강의한 내용이며
이 문제들은 다른 강의들도 다 적중된 문제입니다.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4번 문제)

10. 로마자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산 - Namsan
- ② 불국사 - Bulguksa
- ③ 속리산 - Songnisan
- ④ 왕십리 - Wangsipli
- ⑤ 낙동강 - Nakdonggang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6번 문제)

13. 다음 우리나라의 사전(事典) 편찬 순서로 올바른 것은?

- | | |
|-----------|-------------------|
| ㉠ 『조선어사전』 | ㉡ 『표준조선어사전』 |
| ㉢ 『말모이』 | ㉣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 |
- ① ㉠-㉡-㉢-㉣ ② ㉡-㉠-㉣-㉢
- ③ ㉠-㉢-㉣-㉡ ④ ㉡-㉢-㉠-㉣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6번 문제)

6.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 < 보기 —
- ㄱ. 할머니께서는 피곤하신지 고모가 가자마자 주무신다.
 ㄴ. 어머니께 여쭙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ㄷ. 저녁 내내 서재에만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나오셨다.
 ㄹ. 늦게 퇴근하신 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저녁을 드셨다.
- ① ㄱ의 ‘피곤하신지’는 상대높임법에 해당하고, 선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② ㄴ의 ‘여쭙워’는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특수한 어휘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③ ㄷ의 ‘계시던’은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특수한 어휘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④ ㄹ의 ‘퇴근하신’은 객체높임법에 해당하고, 선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2019 국어 교재 2권 p. 174 ‘특급품’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8번 9번 문제)

특급품(特級品)

- 김소운 -

일어(日語)로 ‘가야’라고 하는 나무-자전(字典)에는 ‘비(櫃)’라고 했으니 우리말로 비자목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 비자목으로 두께 여섯 치, 겹다가 연물이 고르기만 하면 바둑 판으로는 그만이다. 오동(梧桐)으로 사방을 짜고 속이 빈-등을 놓을 때마다 땡땡 하고 울리는 우리네 바둑판이 아니라, 이진 일본식 통나무 기반(基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盤面)이 얽어서 곰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재(盤材)로 진중(珍重)하는 소이(所以)는, 오로지 이 유연성(柔軟性)을 취함이다. 반면에 돌이 닿을 때의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黑檀)이나 자단(紫檀)이 귀목(貴木)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난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품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같으면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들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眞眞)한 묘미가 있다.

반면에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질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 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이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아,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보는 이야기다.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1번 문제)

11. 고유어 계열의 단어와 한자어 계열의 단어 중 어느 것 하나가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삼고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표준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어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가루약
- ② 우렁쌩이
- ③ 멍게
- ④ 알타리무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3번 문제)

추가13. 다음 ㉠-㉣의 준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 그렇지 않은 | ㉡ 만만하지 않은 |
| ㉢ 적지 않은 | ㉣ 변변하지 않은 |
- ① 그렇잖은 만만잖은 적잖은 변변잖은
- ② 그렇잖은 만만잖은 적잖은 변변잖은
- ③ 그렇잖은 만만잖은 적잖은 변변잖은
- ④ 그렇잖은 만만잖은 적잖은 변변잖은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4번 문제)

추가3. ㉠~㉣에 해당하는 것 중,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포함된 것을 고르면?

<보기>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쓴다.
(순 우리말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것)

-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 | | | |
|--------|------|-----|
| ① 나뭇가지 | 아랫마을 | 두렛일 |
| ② 벗가리 | 뒷머리 | 뒷입맛 |
| ③ 아랫집 | 잇몸 | 나뭇잎 |
| ④ 조갯살 | 텃마당 | 베갯잇 |

2019 국어 교재 1권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0번 문제)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교재 2권 ‘엄마 걱정’ 수록
(2019년 군무원 기출 22-23번 문제)

5. 이 시를 다음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 빈 방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① ‘어머니의 힘든 노동’이라는 소재는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② 방 안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시상을 집약하는 것도 좋겠군.
- ③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 화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 ④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려 한 원시의 의도는 그대로 살려 써야겠어.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4번 문제)

추가6. 문장 부호와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쌍점(:)은 쉼표의 일종으로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② 대괄호([])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인다.
- ③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④ 줄표(-)는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2019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5번 문제)

190405 군무원

- 12.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어야 하지. 그래야 기억하기 편해.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써서 적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 ④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어야 해.